

## 社說

###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 선행돼야 —현실 생각 않는 대학 평가제

‘오늘의 대학은 안녕하냐?’  
이 질문에 대해 자신있게 ‘그렇다’고 대답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늘의 우리나라 대학들은 저마다 새로운 ‘입시’ 준비에 여념이 없다.

92년에 정부는 대학종합평가인정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92년 대학교육협의회와 시안 및 예시에 의하면 평가영역은 학부가 5백개, 대학원이 1백개에 이르는 각 대학, 특히 사립대학은 그 평가인정제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점에서 정부의 그러한 방침이 또 하나의 양(量)중심의 획일적 정책임을, 그리고 그동안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회피를 지적하고 싶다.

우선 우리나라 사립대학들은 80년대 후반부터 7년 가까이 연 10%를 넘는 등록금 인상을 보여왔다. 교육에 있어 수혜자 부담의 현실이라는 말이 유행한 이 시기에 정부의 사립대 지원금액은 각 사립대학 예산의 1%도 안되는 것이었다. 물론 이웃 일본이나 우리가 미국의 정책으로 삼는 선진국, 현재의 정책인 중국과 그외의 몇몇 개도국과 비교하면 바다의 수준이다.

또한 우리나라 대학의 문제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던 ‘인간’으로 대칭을 짓고 있는 인식이 만연한 사회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만 한다는 것으로, 임금 격차의 해소, 노동환경의 개선 등

이 선행되어야, 대학의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그로인해 저마다 대학을 가이한다든 강박관념에 해마다 대학입시는 전쟁과 그외 다른 비리를 저지르게 되는 것일지도 정부 부속으로 각종 여론주도층을 일시에 대학과 비리치벌만을 앞세워 ‘개방’이 될 터니 알아서 할라’는 식의 경직을 내놓는 것이다.

또한, 발표된 평가항목을 보면 학부졸업생의 취업률, 학생 탈락률, 학생 1인당 장학금, 학술연구기금 확보 실적, 연구소당 연간 평균 연구비, 교수 1인당 연구비 수혜액, 학과당 평균 정기 간행물 구독수 등 많은 항목들이 이른바 ‘단로’로 해결되는 문제들이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제시한 항목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 만큼의 재정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경쟁력있는 대학으로 인정받을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돈을 써야한다는 말이다.

물론 이미 결정된 사안을 특정학교만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 전체적인 대세이다. 그러나 그러한 평가기준이 현실처럼 ‘질’이 아닌 ‘양’을 기준으로 하는 것일 경우 더 큰 부작용을 낳는 결과가 될 것이다.

교육은 배려지켜라는 말이 있다. 해방후 50년간 우리의 교육정책이 얼마나 계획성 없고 무질서했는지, 그야말로 경쟁력있는 대학으로 인정받는 우수한 정부가 평가를 거쳐 인정을 받아야 할 것이다.

### 현실 극복하는 성숙한 인내가 필요 —무리감속의 남북한 긴장구조

현재 남북교류가 열리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해 우리는 더욱더 냉정한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북한측의 ‘불바다’라는 말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이나, 국력을 과시하고 있는 북한의 ‘통일전쟁 수행’이라는 말 자체에 휩쓸려 갈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은 속으로 조성되고 있는 현재의 위기감을 우리 정부의 통일 정책의 취약성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결국 우리측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 북한과 미국의 줄다리기에 속해서 조바심을 내게 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로 치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나 미래에 북미회담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전제조건은 북한에 대해 최대한의 성과를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북미회담의 결과뿐만 아니라 북한이 향후 3단계 북미회담을 별도로 진행할 것이 합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측은 북미회담의 성사가 북미회담의 선행조건을 요구하는가 하면, 독자 교섭 실무접촉이 진행될 17일 김영삼 대통령과 외국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거론하고, 또한 탈식피리드 훈련의 재개와 패트리트 미사일의 도입을 결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적극적 의지를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북한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일련의 강경정책은 결국 대화의 장에 나선 그들의 입지를 극도로 위축시켰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우리정부는 현실에 연연한 협상의

자리에서 굳이 북한을 자극할 것이 지평한 강경정책을 피하 할 어떠한 이유라도 있었던 것일까.

현재의 ‘위기상황’도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한 것일 것이다. 북측대포의 강경적인 발언만을 무시하고 있는 모습과, 그 발언에 대해 신중해야 할 정부로서 오히려 무리하게 대해 신중해야 할 정부로서 오히려 무리하게 대응하는 것은 현재 남북관계를 결코 개선할 수 없는 것이다.

전혀는 소식이 따르던 이제 남북대화는 우리측을 떠난 듯 보인다. UN 안보리의 결정에 따라 현재는 온전한 국력이 결정될 모양이다. 결국 북미회담의 과정에서 두 개이었던 무력감을 우리는 또 다시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 안보리의 북한한 제재수위가 예상보다 높고 이에 대해 북한이 반발한다면 그것은 무력을 수단으로 한 방법만이 있을 뿐이다. 파국을 막고, 나아가 민족의 문제가 주변 강대국이라고 불리우는 세력에게 중립되는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하든 불가피성의 이유에 호소하지 않는 우리만의 방법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남북관계에 관해서만큼은, 현재 조성되어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싶다. 현재의 강경적인 극한 태도가 불리하게 파국을 생각하고 민족의 생존이 걸려있음을 인식한다면 지금의 인내는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닐 것이다.

# 교양과목 특별시험 어떻게 보고있나

## 대학의 기형적 성장 부채질 질적 개선을 통한 본질추구 필요

올해부터 ‘교양과목 학점 취득 특별시험’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학교측의 미흡한 준비와 학생들의 노력 부족으로 그다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따라서 교양과목 학점취득 시험에 관한 두 가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다. 이 제도의 교양과목 특별시험은 대학이란, 대학교육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편집자 주)

지난 '93년 열린 대학이 못사 람들의 권선징악이 되었던 시기도 없을 것이다. 대학의 부정 입학자를 통한 도덕성에 대한 관심 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대학의 개혁을 이야기하였다. 그 속에서 대학 평가인정제(대학의 자동화상수도)와 UR로 인한 교육 시장 개방에 즈음하여 각 대학은 그 대책을 고민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너도 나도 대학이 절적인 발전을, 개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게 울렸다.

사회의 요구에 의한 대학의 개혁 바람은 우리 대학에 있어 어느 예외는 아니었으며 살아 남기 위한 몸부림을 치게 만들었고, 지난 9년 시작된 교양과목 특별시험으로 그 서막이 크게 되었다.

학생들의 조기 졸업 및 부진공, 복수전공 등을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로 국어, 한국사, 영어I, 영어II 등 4과목에 대해 실시한 교양과목 특별시험은 대학이란, 대학교육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우리 학교의 학제에 의하면 '본 대학교의 목적은 전문학술에 관한 심오한 이론과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전인교육을 통한 고매한 민족적 품격과 도야를 기함으로써 문화복지사회의 건설에 역인이 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교양과목이란 학은 이러한 고매한 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 인간을 양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 도구의 과정인 것이다.

시험 과목 중 한국사의 예를 들어 보도록 하자. 한국사는 한국의 민족, 국토, 문화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살피게 함으로써 민족의 전통과 문화를 이해하고 민족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시험을 통해 민족의 전통과 문화를 이해하고 민족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은 개인의 역사에 대한 지식 정도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수자와의 교감을 통해 시대를 선도하는 대학인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것이다. 일정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이수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지 않은 학생은 이수해야만 하는 A에서 F까지의 학점과 등급만으로 치부해 버리기에 부족한 것이 한국사라는 과목의 성격인 것이다.

지구의 교양과목이 현실적으로 학점을 따는 과정으로 전락해 버렸으며, 그럴 바에야 차라리 시험을 보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다른 과목을 들을 수 있는 기회와 폭을 넓혀주는 주장도 일정 정도의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청춘의 푸른 꿈을 안고 대학에 입학한 새내기들의 열이 수업을 보지.

고등학교와 차별성이 전혀 없는 수업방식으로, 영어 실력의 습득과는 전혀 관계없는 문법과 독해에 치중되고 있다. 전적으로 국제화 사회를 대비해 영어를 배우고 싶은 학생들이 학원으로 바깥을 나가

고 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시험과 교육 시설을 확충한다던가 외국어 학당을 설립하여 수업 내용의 질을 담보하는 것이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일지 생각하자. 진정한 것이 나라의 교육을 격상하는 사람들과라면 교육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노력해야 하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깨쳐 나가 는 속에서 구체적인 노력의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양과목 특별시험이란 현실적으로 어떠한 본질적으로는 자란나의 사회가 요구하는 고급 노동력을 창출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이는 기형적인 대학의 발전을 더욱더 부채질하는 심히 우려스러운 현상의 하나이며 이를 보인다.

우리 나라의 대학은 실로 상도 많이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대학의 질적인 발전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팽창이 곧 질적인 대학 교육의 질적



이승우  
(문리대 학생회장)

발전과 직결된다고는 쉽게 단정해버리기 어렵다. 양적 팽창이 질적 발전의 밑거름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으나 전반적인 하향 평준화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대학의 질적인 발전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팽창이 곧 질적인 대학 교육의 질적

## 교양·전공 교육의 영역 확대 평가위한 다양한 시험 모색돼야

졸업이나 부진공 또는 복수전공 공부를 할성과 하고자 하더라도 그 목적이 있다.

교양과목이란 전공과목과는 달리 전인교육적 차원에서 각기 다른 학문분야의 내용과 과목들이 연결되어 있거나 교양교육의 통일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른 학문분야의 과목 또는 특정과목을 기능적인 측면에서 포함하여 편성 운영되고 있다. 교양교육은 전인교육의 통일성도아래서 측면에서 학문의 통일적 개념을 추구하는 것지만 그 과목자체가 각기 다른 학문분야의 독립된 과목들 중의 하나이며 또한 이들을 통한 교양교육이 각기 다른 영역에서 독립된 지식들이란 점에서 학문의 통일성과 학술적 지식을 통한 인격도야라는 면에서 어렵다는 것이 교양교육의 문제점이라고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래 교양교육은 전문직업교육이 아닌 교육이념의 확장을 바탕으로 한 전인교육, 인간교육이라고 할 수도 있었으나 그 특성상 한편으로는 학문과 학문내부의 로의 유기적 결합과라고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교양교육이 지닌 본래의 성격에 따라서 교육정책에 있어서도 교육의 위한 직접교육으로 전달되는 이차적인 가치관도 중요하였지만 본래의 성격에 따라서 습득된 지식의 활용성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점에 있어 학점제도의 다양성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으며 평가를 위한 시험제도 또한 다양하게 시도되어야 한다.

교양과목에 대한 특별시험제도 자체도 교양교육평가의 다양성과 함께 대학교육이 추구하는 전문화된 전공지식 습득의 기회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교양과목특별시험제도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점과 특별 시험 교과목특별 시험에 대해서는 논의의 대상이 될지 모르겠으나, 그 제도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으며 교양 과정의 교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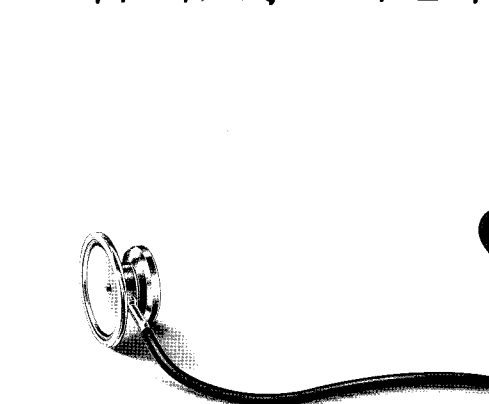
평성에 의한 도구과목이나 기초과목에 대해서는 교양교육의 학술적 의미보다는 함께 전공교육의 영역확대라는 측면에서 그 평가의 다양성이 모색되

어져야 하며 학점제도를 위한 특별시험제도 또한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시도 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불바다” 막는데 필요할 결제”



## 천 사람에게 물어 한 사람의 人才를 구한다



야망을 지닌 젊은이들이 무한히 성장할 수 있는  
‘터’를 만들어 주는 곳, 바로 코오롱입니다.

사람보다 더 중요한 세상은 없다!  
이것이 코오롱의 믿음입니다.

지난 1954년 회사의 첫 상을 뜬 후 40년이 지난 오늘, 일만 삼천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코오롱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1세기 한국경제의 뉴리더로 부상하고 있는 코오롱. 코오롱 40년은 기술개발과 미래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의 시간이었습니.

그리고 천사들에게 물어 한 사람을 구하는 정신으로 꾸준히 인재를 키워 온 ‘인간투자’의 시간이었습니.

세계에서 코오롱만이 ‘실력과 성실성을 겸비한 드문 사람들’로 평판이 난 것도 바로 이러한 코오롱의 ‘인재경영’의 덕분이었습니.

국제화에 앞장서는 인재육성을 위해 큰 야망을 품은 진취적 인재상 등을, 능력에 공평하게 대우하는 일리. /자에게 자아실현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보람의 일터’ 코오롱. /정 한국경제의 동력으로 자리잡기를 원하십니까? /젊은이 야망과 무지기를 마음껏 발휘하고 싶으십니까? /코오롱으로 오십시오. 당신의 ‘터’가 여기에 드리웠습니.

보람의 일터  
**코오롱**